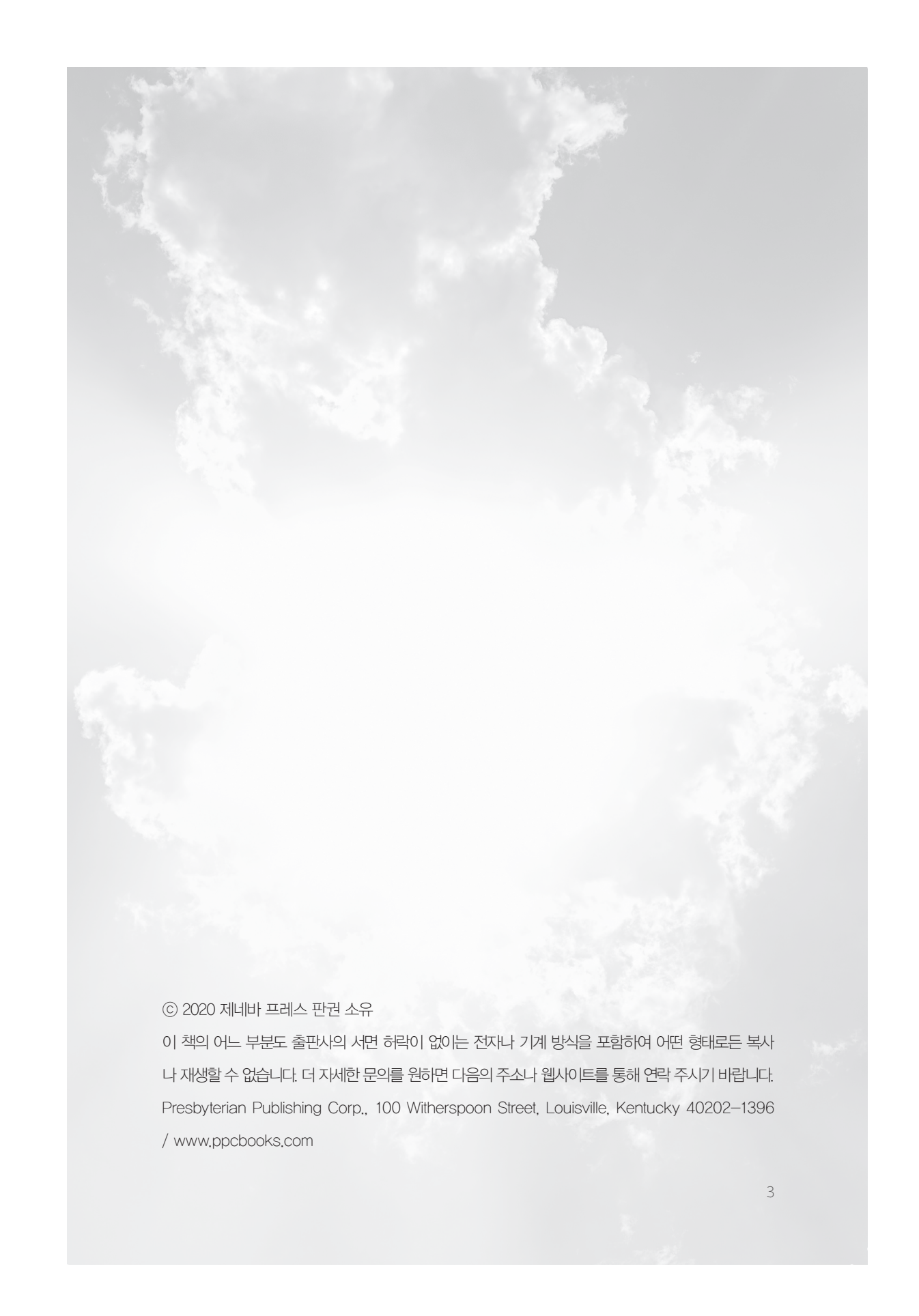


스가랴

여호와와의 날을 준비하라

조은성 목사 지음



© 2020 제네바 프레스 판권 소유

이 책의 어느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락이 없이는 전자나 기계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복사
나 재생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면 다음의 주소나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resbyterian Publishing Corp.,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entucky 40202-1396
/ www.ppcbooks.com

편집자 박선규 목사

집필자 조은성 목사(시카고연합장로교회)

감수자 고훈 목사(뉴욕하은교회), 한만식 목사(유타한인장로교회)

차 례

편집자 노트 / 5

활용법 / 6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 / 8

총론 / 10

제 1 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2
제 2 과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17
제 3 과 제사장직이 회복될 것이다	23
제 4 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28
제 5 과 심판자 하나님	33
제 6 과 왕 같은 제사장을 향한 비전	39
제 7 과 참된 금식	44
제 8 과 사랑하기 때문에	49
제 9 과 겸손 vs 교만	55
제10과 밝은 미래를 꿈꾸라	61
제11과 선한 목자 vs 악한 목자	66
제12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72
제13과 여호와의 날	77

폴란드의 비극적인 역사의 산물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Those who does not remember history is bound to live it through again)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역사 속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끔찍한 일을 기억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바로 잡지 않으면 그와 유사한 끔찍한 일이 반복되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관용구로 “역사는 반복된다”(History repeats itself)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함으로 과거의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복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한 지 약 70년이 흐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한 그들의 일상은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죄악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또한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여러 환상들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스가랴서는 현대 교회들이 꼭 읽고 묵상하고 이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악된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킹덤 라이프 : 스가랴서”가 개별 그리스도인들 및 전체 교회의 죄악된 역사를 끊을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힘써 주신 시카고 연합 장로교회 조은성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박선규 목사

“킹덤 라이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기 위한 나눔식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이다. 말씀에 기초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이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마음 열기

그날에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상 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를 향해 그리고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말씀 듣기

성경을 천천히 읽고 듣는 가운데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단계이다.

- 1) 말씀 듣기는 두 번으로 되어 있다. 처음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읽기 전에 배경 설명과 도움말을 먼저 읽은 후에 본문을 읽는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책 안에 있는 지시를 따라 읽고 경청한다.
- 2)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과 인상을 얻는다.



말씀 깨닫기

- 1) 말씀 깨닫기에 나오는 4개의 질문들은 성경 본문을 하나의 플롯으로 보도록 고안된 관찰 질문들이다.
- 2)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간혹 배경설명이나 도움말을 참조해야 할 때가 있다.
- 3) 인도자 교재에는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들 외에 점점 심화되는 추가 질문(해석 질문)들이 나와 있다. 인도자가 모임을 나눔 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참가자들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에 기초한 깨달음(encounter)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 따라 살기

- 1)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나누는 과정이다.
- 2) 첫 번째 질문은 개인에게,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교회, 이웃, 나라, 세계)에 적용하는 질문이다.
- 3) 말씀 깨닫기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교재에 실린 실천사항 대신 그것을 실천해도 좋다.

1. 인도자는 가르치는 자(teacher)라기보다 참가자들이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자(facilitator)임을 명심하라. 따라서 답안지를 읽어 주거나, 답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도록 하라.
2. 그날의 모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3. 각 단계별 지침 : 1시간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누었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 1)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표 : 참가자용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다. 참가자들이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인도자는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모임을 인도해야 한다.
- 2) 오늘의 말씀/찬송/기도
- 3)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 말씀에 기초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말씀 따라 살기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한 것을 한 주간 꼭 실천하도록 도전하고, 실천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라. 다만,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한두 사람 정도 나누게 하면 좋을 것이다.
- 4) 마음 열기 :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한두 사람 정도만 나누게 한다.
- 5) 말씀듣기 1, 2 : 첫 번째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라. 그런 후에는 한 사람에게 배경설명과 도움말을 읽게 하여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도록 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참가자 교재에 나와 있는 지시에 따라 읽고 경청하게 하라. 말씀 듣기의 목적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본문의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 보게 하는 것이다. 마치 하늘에서 숲을 보는 것과 같이 말이다.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



말씀 깨닫기(30분)

참가자용에는 네 개의 관찰 질문들이 있고, 인도자용에는 관찰 질문들에 기초한 해석 질문이 추가되어 있으며, 또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 따라 나온다. 이렇게 말씀 깨닫기 항목은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본문이 현재의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깨닫게 하는 이중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인도자 지침에 나와 있는 답을 읽어 주어서는 안 된다. 인도자가 답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매 질문마다 모든 참가자들이 답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들의 답을 듣는 것만 해도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시간이 허락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라.



말씀 따라 살기(15분)

첫 번째 질문은 개인에게,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에게 적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해 볼지 나누어 봅시다.”와 같은 유형의 질문을 하라.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첫 번째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건너뛰게 해도 된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질문에 답하게 하고, 그것을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두 번째 공동체 적용을 위한 질문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소그룹이 함께 실천하거나, 또는 개인이 공동체(교회, 기관, 지역 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B.C. 538년에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렘 29 : 10)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 만에 귀환하게 된다(B.C. 605년에 있었던 1차 포로 이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귀환 후 2년 만에(B.C. 536년)에 성전 재건의 기초공사를 마친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자신들도 동참시켜 달라고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귀환자들이 볼 때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스 4 : 3). 그러자 유대의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곽을 건축하는 것은 바사를 배반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짓 상소를 바사 왕에게 올린다. 그들은 또한 관리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마침내 왕은 조서를 내려 공사를 중지시키기에 이른다(스 4 : 5-6, 21). 그후 약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만다(B.C. 520년까지).

16년 후, 다리오가 바사의 왕이 되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B.C. 521년). 하지만 포로 귀환 공동체는 아직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어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신다(학 1 : 8).

하나님은 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스 1 : 3), 이스라엘은 돌아오실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증거이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이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고, 동시에 교회의 온전

한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1-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재의 문제(성전 재건과 금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9-14장)는 묵시적이고 종말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전반부의 핵심인 여덟 가지 환상들은 이제 겨우 재개된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는 중단되는 일 없이 준공되는 그날까지 계속되도록 촉구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다. 이 여덟 가지 환상들은 성전 재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당시 선민들이 명심해야 할 여러 교훈들, 나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 주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약적 축복 및 종말론적 축복까지를 제시해 준다. 그리하여 당시의 포로 귀환 세대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고 있다.

한편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후반부에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세상 끝날의 결정적인 구속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선민이 누리게 될 복된 미래의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막막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위축되어 있고, 일시적 안일과 세속적 이익을 쫓아 다니면서 다시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반복할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종말론적 미래의 비전을 보여 주시므로써 현실을 뛰어넘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킬 근본적 힘을 주고 계신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1과

—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전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오늘의 말씀 : 스가랴 1 : 1~6

찬송 : 531장(통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자신의 습관들 중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되는 습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 줍니다.

배경설명 :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한다. B.C. 538년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가 심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Kingdom
Life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장애에 부딪히자 그 목적을 잊은 채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을 반복하며 살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던 중 바사의 다리오 왕 제2년(B.C. 520년) 6월 1일에 선지자 학개가 등장하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학 1장 참조).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는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 사업의 재개를 명하면서 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된다. 본문은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 사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에서는 온전히 떠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도움말 :

- 다리오 왕(1절) : 고레스가 명했으나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하도록 명한 인물.
- 만군(3절, 히 : 체바오트) : 하늘 혹은 천사 군대를 의미함.
- 만군의 여호와(3절, 히 : 야웨 체바오트) : 이 호칭은 주로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등장하며,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줌으로써 존경심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불러 넣어 준다. 스가랴서에서 53번이나 사용됨.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구절에 유의하면서 경청합니다.



말씀 깨닫기(30분)

1.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1절)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이다.

성전 재건 사업이 다리오 왕 제이년 6월에 재개된 것과 관련하여,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을 명확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배경 설명 참조)

스가랴가 어떤 시대적 혹은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였는지를 알려 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즉, 스가랴는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2. 스가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첫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4절)

선지자들을 통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6절)

그들이 떠나지 않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이유로든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혹은 징계)을 받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해야 한다.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3-4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통해 볼 때, 약 2개월 전에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개월 전에 선지자 학개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를 듣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를 보내어 성전 재건재개를 지시하셨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학 1 : 12, 1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멀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과 같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온전히 떠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외적인 활동들로 내적인 죄의 문제를 덮어 버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 즉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심판을 초래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의 핵심은 우상숭배와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의 뿌리에는 결국 자기 중심성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학 1 : 2, 9 참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회개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한결 쉬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죄는 여전히 달콤하게 다가온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혹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경건의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

4. 본문에서 스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주로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3, 4, 6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에 담긴 의미를 고려할 때,

스가라가 하나님을 이렇게 칭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도움말 참조)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를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다. 그리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방치해 둔 상태에 있다가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과 격려의 말을 듣고 이제 막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한 상태이다. 따라서

스가라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칭호와 그 이유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예 : 여호와 샬롬(평화), 여호와 라파(치유), 여호와 닛시(깃발, 승리), 여호와 이레(준비), 목자 하나님(시 23편), 만군의 여호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시 18편) 등.



말씀 따라 살기(15분)

인도자는 참가자 교재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라.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자들은 1번(개인 적용)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지 나누어 봅시다.”

1.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좁히기 위해 한 주간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일을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없는지 생각해 보고 한 주간 실천해 보도록 하자(예 : 시간을 정하여 말씀 묵상하기,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기, 드라마 시청 시간 줄이기, 불화한 사람과 화해하기 등).

2.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독특한 혹은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 소그룹이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봅시다.

인도자는 주중에 미리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독특한 혹은 특별한 사명을 문의하도록 하자. 참가자들에게 우리 교회의 독특한 사명을 소개한 후에, 우리 소그룹이 그 사명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나누어 보고 한 주간 실천해 보자.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주신 독특한 사명이 이민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라면 이민자 보호 단체나 기관에 연락하여 우리 소그룹이 참여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